

치 사

반갑습니다.

2010년 새해의 문턱을 넘은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파릇한 봄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봄날, 이 곳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고,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1,700여년 동안 이어진 한국불교의 찬란한 문화를 21세기에 구현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입니다.

지난 2002년, 오직 한국불교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을 알리겠다는 의지로 굳게 닫혀있던 산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우리의 사찰문화가 세계를 감동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채 10년이 되기 전에 세계 유수의 언론은 물론 OECD로부터 세계 우수 문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성공의 길에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유유히 흐르는 불교문화의 향훈,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내고자 한 많은 스님, 사찰 실무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불교의 유구한 수행 종풍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신문화에 큰 관심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선禪

**수행법을 알리고 물질 기반의 사회에서
정신 기반의 사회로 안착하는 지혜를
전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불보살님께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4년 4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